

청소년의 부모 부양의식과 중년기 부모의 노후 준비도

Comparison of Teenagers' attitude of Supporting their Elderly Parents
the Parents' preparation for old age.

명지대학교 생활과학부

교수 이희자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학과

석사 김영미

Division of Human Ecology Myong Ji Univ.

Prof. : Hee ja, Lee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the Graduate of School of Education Myong Ji Univ.

Master : Young Mi, Kim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및 논의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reasearch is to study the teenagers' attitude of supporting their parents when they grow old and the parents' preparations for the changing values to predict the changed pattern and the possible evolution of family relationship, provide schools and the society with meaningful information for education policy and to propose an appropriate life style for the elderly parents.

As an investigative method, questionnaires were used to 600 people including students in schools located in Suwon, Kyongki-Do.

All the data were processed with the Satistical Analysis System (SA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Teenagers' living with their grandparents said that they get much help from their grandparents

2. The teenagers' consciousness of supporting their parents when they grow old varied according to sex : i.e. male students said that children should bear the cost of supporting their old parents.

3. The more educated, the more accepting of their future life in the homes for the aged.

4. A low level of expectations for children's support in that many parents believed that the responsibility for support lies in the parents themselve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전통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부양은 가족이 부양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고, 경로효친의 사상에 근거한 하나의 미덕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사회로 갈수록 산업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가족구조의 변화, 역할의 변화로 가족부양은 전통사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노인부양의 문제로는 산업화·핵가족화로 우리고유의 비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이 감퇴되어 간다는 점과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령화 사회에서의 노인에 대한 경제적 부양의 어려운 문제를 들 수 있다. 또한, 사회변동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노인의 심리적 소외감, 고독감을 극복시켜주는 문제와 노화현상에 수반되는 신체 서비스상의 부양문제를 들 수 있다. 1970년 이후 우리나라의 노인에 대한 연구는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 졌는데, 주로 노인의 가족관계, 건강, 복지에 관한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반면, 부양에 대한 연구는 저조한 상태이다(구은옥, 1989). 유호신(1985), 임종권 외(1985), 송효식(1989) 등의 선행 연구결과에서는 대다수인들이 노후의 부양책임을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산업화·핵가족화 등의 사회변화에 따라 부모 부양의식 및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부양 기대도가 변화 되었으리라 생각되며, 부양 기대도의 변화에 따라 부모의 노후 준비도 역시 변화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아직도 노인부양의 근간이 가족부양임을 감안할 때,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의 가

치관이 그 사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구실을 한다는 것을 인식할 때 정부와 언론과 각 교육기관은 연대의식을 가지고 청소년을 지도해야 할 것이며(임종권 외, 1985), 이러한 의미에서 청소년의 부양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앞으로 노인부양문제에 직면하게 될 청소년과 노년기를 맞이하게 될 중년기 부모를 대상으로하여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부양의식을 파악하고,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부양 기대도와 노인기에 대한 준비도는 어떠한지 관련된 요인들은 무엇인가 분석하여, 노인부양에 대한 청소년 교육의 기초 자료 및 사회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이 지각한 노인에 대한 태도는 관련 변수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2) 청소년의 부모 부양의식은 관련 변수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3) 부모의 노후 피부양의식은 관련 변수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4) 부모의 노후 준비도는 관련 변수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5) 청소년의 부모 부양의식과 부모의 노후 피부양의식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 개념 정의

- (1)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
청소년의 성별, 출생순위, 종교,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유무 등에 따라서 노인과의 동거와 생활의 도움 관련성, 노인의 권위와 생활이 어떠한가, 우리 사회의 노인문제는 어떠한가 등의 청소년이 지각한 내용을 의미한다.

(2) 부모 부양의식

청소년의 부모 부양의식은 노부모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성인 자녀의 부양의무 및 부양 행동 등의 현실적인 것이 아닌 부양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경우 갖게 되는 피상적인 부양의식을 말한다.

(3) 부모의 피부양의식

노후의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인 부양을 자녀에게 의존할 것인가, 자녀로부터 독립하여 자력으로 해결할 것인가, 국가와 사회에 의존할 것인가에 대한 중년기 부모들의 부양 기대도를 의미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

Cowgill(1974)은 농촌사회에서 중요하게 작용했던 노인의 경험, 지식, 기술은 산업사회에서는 적합하지 못하고 또한 신체적 쇠퇴으로 노동시장에서 밀려나 사회적 역할을 상실하므로 노인은 의존인구로 전락하게 된다고 하였다. 산업화가 가족에게 미친 중요한 영향을 Goode(1963)는 “노부모에 대한 자식의 의무가 약화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농촌 청소년의 노인 부양의식을 조사한 임한순(1992)의 연구에 의하면 대가족인 경우가 소가족인 경우보다, 종교를 가진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가족 구성이 확대가족인 경우와 과거에 노인과 동거 경험이 있는 집단이 동거중이거나 동거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노인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의 평균 점수가 높게 나왔다.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허훈(1988)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에 대해서는 '존경하고 있다'거나 '잘 모셔 드리고 싶다'는 긍정적인 태도의 응답율은 84.2%를 보였고 '키찮은 존재로 여겨진다'

거나 '관심이 없다'는 부정적인 응답율은 5.1%로 나타났다.

2. 청소년의 부모 부양의식

현대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결과로써 가족기능이 약화되었고 구성원들의 개별성을 존중하게 되었다. 현대사회는 전통사회와는 달리 노인을 부양하는 방법과 정도가 변화하였고 부모·자녀의 가치관 차이는 노부모 부양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노년기에 접어든 개인은 그들 나름의 독특한 상황을 갖게 되고, 그러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특히 가족관계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젊은세대가 노부모 세대에게 베푸는 부양의 역할은 과거에 자녀들이 성장할 시기와 그 부양의 역할이 바뀐 것이긴 하지만 '부모의 역할'이 아닌 효도내지 자식으로서의 성숙성에 기초를 둔 부양인 것이다. 이러한 효도와 자식으로서의 성숙성은 노부모가 믿고 의지하려는 여러 의존성을 어느정도 가까이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자녀세대 쪽의 역량을 뜻한다.

청소년의 부모 부양의식은 임종권 외(1985), 유호신(1985), 허훈(1988), 송효석(1989)등의 연구결과와 같이 자녀가 부양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부양태도면에 있어서는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1979년의 경우에는 부양책임이 장남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30.6%, 아들들이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22.2%로서 이를 당연시 여겼으나, 1980년대로 들어서면서 부터는 그러한 경향이 점차 감소하여 1991년 현재 장남에게 부양책임 있다고 보는 경우는 18.3%, 아들 모두에게 있다고 보는 경우는 13.8%로 감소 하였다. 그에 비해 아들, 딸 모두가 부양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보는 태도는 1979년 6.4%에서 1983년 27.1%, 1988년 35.8%, 그리고 1991년에는 46.2%나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 전반적인 태도 변화와 개정 가족법의 영향으로 장남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기대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반영해 주고 있다(유영주 외, 1994).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고경애(1990)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향후 자신의 피부양태도에서는 부양태도와는 달리 장래에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기대하거나 신체의 노후를 의존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부모 부양책임에서는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청소년들의 의식이 변화 되었으나, 자녀가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부양의식에서는 전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부모의 피부양의식

현대사회는 산업사회의 구조적 특성으로 가족구조가 변하고 구성원의 역할도 변화하였기 때문에 자녀의 노부모 부양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Cicirell, 1983). 사회보장 제도로서 노인의 부양대책은 국가적인 재정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가 체계적으로 완비되지 못하고, 도입 확충해가는 초기단계이므로, 가족 내에서의 노인부양이 중점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Stuen, 1985). 부모의 피부양의식에 대한 연구결과중 한국궤립조사연구소의 조사(1984)에서는 78.2%의 노인들이 자녀들에게 경제적 부양을 의존하고 있었으며, 김태현(1981)의 연구결과와 이후 계속된 연구들의 결과 역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임종권 외(1985)의 연구에서 부양자의 노후 생활비 마련태도 결과에서는 '자력으로 마련해야 한다'가 86.6%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송효석(1989)의 연구에서 서비스 부양에 대한 인식결과 동거인들 중 약 90.0%의 노인들은 병간호를 받드시 자녀가 해야함을 나타내었고, 별거노인들의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이 자녀의 병간호를 강조하였으나 약 20%의 노인들은 자녀로부터의 독립성이 강하였다.

따라서 부모의 피부양의식은 대부분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자녀 부양'에서 '자력으로 마련해야 한다'로 변화되고 있고, 정서적·신체적 피부양의식은 가족, 특히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부모의 노후 준비도

부양을 필요로하는 측면을 세분화하여 노인의 부양만족도의 측면에서 경제적·정서적·서비스적 부양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세가지 영역이 만족되어야만 노인부양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1) 경제적 준비도

경제적 부양이란, 노인이 필요로 하는 금전이나 물질을 제공하는 것으로 노인의 빈곤, 질병 및 소외감, 만족감 등에 관련되는 것이다. 노인에게는 빈곤, 질병, 고독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나 노인문제 해결의 열쇠는 경제적 생활의 안정에 있다. 유호신(1985), 송효석(1988), 이가옥 외(1990)등의 선행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다수 노인들의 경제적 문제를 자녀가 해결 하여주고 있으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간(1979)은 노인들이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에 의한 경제적인 부양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였으며, 김태현(1995)도 노인에 대한 부양의무감 때문에 동거하는 자녀가 자신의 생활을 억압하고 갈등을 빚어낼 위험을 줄이고 가족부양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노인의 경제적 자립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2) 정서적 준비도

정서적 부양은 노인의 고독감과 불안을 해소하고 인격적, 정서적 욕구의 충족을 제공하는 부양을 말한다. 1960년대 이후의 급진적인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경향으로 노인들은 가부장적 지위에서 탈락되는 현상을 빚어냈고, 가정과 사회에서 젊은이들과의 갈등, 또는 세대적 단절을 겪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가족기능의 본질은 정적 기능에 의거한 정서적 역할(affective function)에 있으며, 경제적 고립은 공적기관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다고 하지만 고독의 감정은 공적기관을 통해 적절히 해소시키기는 힘들다(김태현, 1995).

(3) 신체·서비스 준비도

신체·서비스 부양은 노인의 신체적 조건에 따라 취사, 목욕, 세수 등의 보살핌과 시중을 제공하는 부양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노부모의 병간호, 살림 돌보기 등의 서비스 부양은 모두 동거하고 있는 자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거자녀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이가옥 외(1991)의 연구에서 노인의 주수발 담당자는 가족성원이며, 그 중에서도 동거하고 있는 가족성원 그리고 여사성원에 게 의존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동거며느리가 34.9%로 주수발 담당자로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가족에서 노인부양자는 며느리였으나, 점차 여성들이 고학력화 되고 취업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내에서 여성이 노인의 서비스 부양을 담당하는 경우가 줄게 되었다. 가정내에서 노인부양을 담당할 사람의 부재현상은 주로 가족과의 동거에 의해 서비스 부양을 받던 우리나라 노인에게 새로이 대두되는 문제인 것이다.

송효석(1989)의 연구에서 서비스 부양상태 조사결과, 동거노인들은 과반수 이상이 자녀가 병간호를 하고, 별거노인들은 배우자가 병간호를 하는 비율이 52.0%로써 두 집단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노인들의 가사원조에 있어서, 별거노인들이 동거노인들보다 이웃의 지원망을 많이 활용하고 있음이 나타나 앞으로 별거노인들에게 이웃의 지원망이 더욱더 그 중요성을 더해갈 것임을 반영해 준다.

Ⅲ.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앞으로 부양문제에 직면하게 될 청소년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 및 부양의식을 살피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한 남·여 고등학교 3학년생 대상으로 하였으며, 또한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에 대한 부양 기대도 및 노후 준비도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1995년 4월 20일부터 4월 21일 까지 2

일간 고등학교를 자녀로 둔 부모 31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하였으며, 1995년 4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 총 600명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한 자료중 부적절한 질문지를 제외하여, 총 452부만이 연구분석에 사용 되었다.

2. 조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는 설문지로서, 청소년용 설문지와 부모용 설문지 두 종류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임한순(1992), 배계희(1988)의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하여,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거나 직접 작성하여 사용하였다.

질문내용은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노인에 대한 태도 및 부양의식 18문항, 부모의 일반적 특성, 노후생활 태도, 사회관계망지원에 대한 기대도, 신체적·정서적·경제적 노후준비정도 4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부모의 신체적·정서적·경제적 노후준비도의 각 10개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사(Reliability 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이 나타나 본척도의 문항들이 비교적 일관성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부모의 노후준비도에 관한 신뢰도

영역	예비조사	본조사
신체적 준비	0.81	0.69
정서적 준비	0.78	0.63
경제적 준비	0.56	0.50
전체	0.81	0.77

3. 분석 방법

분석에 사용된 모든 자료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Program으로 처리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변인에 대하여 빈도, 백분율, 산술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변인들간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X² 검증, F-Test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추후검증으로는 Duncan-Test를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본 연구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요약해 보고, 그에 따른 논의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이 지각한 노인에 대한 태도는 관련 변수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관련변수 성별, 출생순위, 종교, 조부모와의 동거경험 유무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한 노인에 대한 태도는 '노인을 모시고 사는 것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가' 문항에서 조부모와의 동거경험 유무 변수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표 2〉에서 알아본 결과 노인과 함께 사는 것이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는 현재 노인과 동거중인 청소년이다.

〈연구문제 1〉에 대한 검증은 부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선행연구인 임한순(1992)의 연구결과에서 조부모와 동거경험이 있거나 현재 동거중인 경우 노인에 대한 태도에서 좋은 점수가 나온 것과 일치를 보이고 있으며, 허훈(1988)의 연구에서 조사 대상자가 노인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과 일치하고 있다.

〈연구문제 2〉 청소년의 부모 부양의식은 관련변수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관련변수 성별, 출생순위, 종교, 조부모와의 동거경험 유무중 유의한 것은 성별로 나타났다. 〈표 3〉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남녀 모두 부양에 드는 비용은 '자녀가 해결', '세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남학생이 '자녀가 해결해야 한다'에 응답이 높은 반면 여학생은 '본인이 해결해야 한다'에 좀 더 응답이 높았다($p < .05$).

부모 부양책임은 〈표 4〉에서 알아본 결과 남녀 모

〈표 2〉 조부모 동거 경험 유무에 따른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

문항 독립변인	조부모 동거와 생활의 도움					X ²	df
	도움 안됨	도움 조금됨	도움 많이됨	합계(%)			
현재동거중	5.13	56.41	38.46	100	11.177*	4	
동거경험有	11.39	72.15	16.46	100			
동거경험無	10.28	74.77	14.95	100			

*P < .05

〈표 3〉 청소년 성별에 따른 경제적 부양의식

문항 독립변인	노인 부양에 드는 비용				X ²	df
	본인이 해결	자녀가 해결	세금으로 해결	합계(%)		
남	7.89	74.56	17.55	100	5.997*	2
여	17.27	60.91	21.82	100		

* P < .05

〈표 4〉 청소년 성별에 따른 부양 책임 의식

문항 독립변인	부모 부양 책임				합계(%)	X ²	df
	장남 아들형제	아들 딸	부모가 원하는자녀	부모가 자립해서			
남	36.52	16.52	42.61	4.35	100	46.136***	3
여	5.46	43.64	36.36	14.54	100		

*** P < .001

두 '부모가 원하는 자녀'에 응답율이 높았다. 남학생이 아들형제가 모셔야 한다는 비율이 높은 반면 여학생은 아들, 딸의 비율이 높았다($p < .001$).

〈연구문제 2〉에 대한 검증은 부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하고, 동거를 희망하는 것은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으나 노인 부양에 드는 비용을 '자녀가 해결해야 한다'는 결과는 임종권 외(1985)의 연구결과와 불일치하고 있다.

〈연구문제 3〉 부모의 노후 피부양의식은 관련변수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관련변수는 부의 직업, 모의 직업유무, 부모의 학력, 월수입이며 〈표 5〉와 같이 양로원에서의 노후생활에 대한 문항은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p < .05$)가 나타났는데 학력이 낮을수록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고졸 이상인 경우는 '시설이

좋다면 들어가고 싶다'고 하였다.

〈표 6〉과 같이 부양형태에서는 부모의 학력에서 유의한 차이($p < .05$)가 나타났는데 부는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적 자립을 더 희망하였고, 모는 고졸인 경우가 더 경제적 자립을 희망 하였다.

〈연구문제 3〉에 대한 검증은 부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로원에서의 노후생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최근 제일생명이 조사한 결과(1995)와 일치하고 있다. 노후 부양책임은 아들·딸 모두에게 부양책임이 있다고 응답하여 전통적인 부양의식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유호신(1985), 임종권 외(1985), 송효석(1989)등의 연구결과와 대조를 보이고 있으나 김자혜(1992), 유영주 외(1994), 제일생명(1995)등 최근 연구결과와는 일치하고 있다.

〈표 5〉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노후 피부양의식

문항	양로원에서의 노후 생활						
	독립변인	들어가고 싶다	시설이 좋다면 들어가고 싶다	들어가고 싶지않다	합계(%)	X ²	df
국졸이하		0.00	18.18	81.82	100	16.048*	6
중 졸		0.00	7.50	92.50	100		
고 졸		0.81	39.02	60.17	100		
대졸이상		0.00	33.33	66.67	100		

* P < .05

〈표 6〉 부모의 학력에 따른 노후 피부양 형태

문항	피부양 형태							
	독립변인	동거 경제적부양	동거 경제적자립	별거 경제적부양	별거 경제적자립	합계(%)	X ²	df
父	국졸이하	54.55	0.00	22.22	23.23	100	20.608*	9
	중 졸	10.81	18.92	27.03	43.24	100		
	고 졸	14.41	23.73	14.41	47.45	100		
	대졸이상	14.28	24.49	8.17	53.06	100		
母	국졸이하	24.00	12.00	36.00	28.00	100	21.367*	9
	중 졸	13.11	29.51	19.67	37.71	100		
	고 졸	14.41	19.49	10.17	55.93	100		
	대졸이상	30.00	30.00	10.00	30.00	100		

* P < .05

〈연구문제 4〉 부모의 노후준비도는 관련변수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관련변수 부의 직업, 모의 직업유무, 부모의 학력, 월수입은 전체적인 준비도 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서적·경제적 준비도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01$). 〈표 7〉과 같이 전체적인 준비도는 부의 직업이 기타·단순노무자 등인 경우에, 부모의 학력이 국졸 이하인 경우, 월수입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높았다. 전체적인 준비도에서 평균은 모두 3.0 이하였으며 Duncan-Test한 결과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학력에서는 국졸이하인 집단과 중졸 이상인 집단이, 어머니의 학력에서는 고졸이하인 집단과 대졸이상인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과 월평균 수입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보이지는 않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와 기타의 직업과 월평균 수입 1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적인 준비도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다.

신체적인 준비도는 〈표 8〉과 같으며 부의 직업이 기타인 경우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월수입이 적을수록 높았고, 정서적 준비도는 〈표 9〉와 같이 부의 직업이 기타인 경우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월수입이 101-150만원인 경우에 높았다. 또 경제적인 준비도는 〈표 10〉에서와 같이 부의 직업이 상업, 판매종사, 서비스인 경우, 부모학력이 낮을수록, 월수입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높았다.

〈표 11〉과 같이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노후 준비도는 두 집단간의 비교를 위해 t-test를하여 살펴 보았는데 신체적인 준비는 직업이 있는 경우에

〈표 7〉 각 변인에 따른 부모의 전체적인 노후 준비도

	부 직업				부(모) 학력				월 수입		
	①	②	③	④	국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100만원 이하	101 ~ 150	150만원 이상
빈도	72	21	40	49	9(18)	33(54)	101 (101)	42(42)	40	72	71
평균	2.71	2.72	2.78	2.80	3.11 (2.91)	2.78 (2.78)	2.73 (2.71)	2.66 (2.50)	2.83	2.75	2.69
Duncan	a	a	a	a	a(a)	b(a)	b(a)	b(b)	a	a	a
F값	3235.94***				3322.41 (3250.52)***				4086.98***		

① 전문·관리·사무직, 공무원 ② 기술직 ③상업, 판매종사, 서비스 ④ 기타 *** $p < .001$

〈표 8〉 각 변인에 따른 부모의 신체적인 노후 준비도

	부 직업				부(모) 학력				월 수입		
	①	②	③	④	국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100만원 이하	101 ~ 150	150만원 이상
빈도	85	22	44	53	10(23)	37(58)	112 (114)	48(11)	46	77	83
평균	2.74	2.81	2.84	2.93	2.97 (2.94)	2.95 (2.88)	2.78 (2.75)	2.75 (2.66)	2.87	2.8	2.77
Duncan	a	a	a	a	a(a)	a(a)	a(a)	a(a)	a	a	a
F값	1731.12***				1706.08 (1717.56)***				2212.46***		

① 전문·관리·사무직, 공무원 ② 기술직 ③상업, 판매종사, 서비스 ④ 기타 *** $p < .001$

〈표 9〉 각 변인에 따른 부모의 정서적인 노후 준비도

	부 직 업				부(모) 학 력				월 수 입		
	①	②	③	④	국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100만원 이하	101~150	150만원 이상
빈도	82	25	44	52	11(22)	37(58)	110 (113)	48(11)	45	76	83
평균	2.66	2.58	2.71	2.78	3.09 (2.81)	2.66 (2.68)	2.69 (2.68)	2.61 (2.55)	2.72	2.73	2.63
Duncan	a	ab	ab	b	a(a)	b(ab)	b(ab)	b(b)	a	a	a
F값	2296.89***				2260.85 (2131.87)***				2868.40***		

① 전문·관리·사무직, 공무원 ② 기술직 ③ 상업, 판매종사, 서비스 ④ 기타 *** P < .001

〈표 10〉 각 변인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인 노후 준비도

	부 직 업				부(모) 학 력				월 수 입		
	①	②	③	④	국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100만원 이하	101~150	150만원 이상
빈도	80	25	40	53	10(21)	35(59)	111 (109)	45(10)	44	76	79
평균	2.75	2.78	2.80	2.68	3.10 (2.86)	2.79 (2.81)	2.72 (2.71)	2.69 (2.45)	2.90	2.70	2.70
Duncan	a	a	a	a	a(a)	b(a)	b(a)	b(b)	a	b	b
F값	2681.34***				2717.63 (2650.82)***				3581.99**		

① 전문·관리·사무직, 공무원 ② 기술직 ③ 상업, 판매종사, 서비스 ④ 기타 *** P < .001

〈표 11〉 어머니의 직업유무와 노후 준비도의 t-test

영역	직업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DF	유의도
신체적	유	89	2.87	0.50	1.84	206	0.07
	무	119	2.75	0.47			
정서적	유	87	2.63	0.44	-1.54	204	0.12
	무	119	2.72	0.39			
경제적	유	88	2.70	0.40	-1.27	199	0.21
	무	113	2.77	0.37			
전 체	유	79	2.73	0.37	-0.26	183	0.80
	무	106	2.74	0.31			

더 높았으나 정서적·경제적인 준비도는 직업이 없는 경우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통계적으로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다.

따라서 〈연구문제 4〉에 대한 검증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부모의 노후준비도를 보면, 평균점수가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준비의 순서로 높게 나와 배계희(198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부모의 노후준비도는 전체적으로 낮으며 부모는 노후에 자녀와 별기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아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낮으면서도 노후준비도 역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12〉와 같이 중년기 주부가 갖고 있는 사회적 지원을 연구해 본 결과 배우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기대치가 높게 나와 배우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고, 노후의 정서적인 준비도가 낮은 것으로 보아 사회적 지원망의 폭이 넓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표 12〉 중년기 주부의 사회적 지원도

변인	집 단	%			
		경제	정서	정보	여가
사회적 지원	시가, 친정친척	11.1	9.3	5.3	1.8
	출가한 자녀	19.5	13.3	11.9	1.6
	친구	11.1	24.3	23.9	23.7
	이웃, 직장동료, 전문가	10.6	11.1	42.5	9.6
	배우자	47.8	42.0	16.4	60.3

〈연구문제 5〉 청소년의 부모 부양의식과 부모의 노후 피부양의식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표 13〉을 보면 청소년들이 부모 부양책임은 '부모가 원하는 자녀'(39.6%)가 가장 많이 응답한 것과는 달리 부모는 '부모 자신에게 있다'(48.6%)고 생각하여 노후 생활을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식이 높아졌음을 볼 수 있다. 청소년과 부모 모두 아들뿐만 아니라 딸도 부양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소수 이기는 하지만 3.2%의 부모가 국가·사회기관에 부양책임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13〉 청소년과 부모의 노후 부양책임 비교

변인	범 주	(단위: %)	
		청소년	부모
부 양 책 임	장남	9.3	10.4
	아들형제	12.0	8.6
	아들 딸 모두	29.8	17.6
	부모가 원하는 자녀	39.6	11.6
	부모 자신	9.3	48.6
	국가 사회기관	-	3.2
계		100.0	100.0

또한 청소년은 부모 부양중 신체적, 정서적 부양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경제적 준비를 낮게 인식한 반면, 부모의 노후 준비도에서는 신체적, 경제적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정서적 준비도 점수가 가장 낮아 청소년과 부모 모두 신체적인 부양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부양형태에서는 〈표 14〉와 같이 청소년들이 결혼후 독립했다가 노후에 모시고 살기를 희망하였고, 부모들은 자녀와 별거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자립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는 연구 대상자중 어

머니의 직업이 있는 경우가 42.7%로 맞벌이 부부가 많은 특성도 배제할 수 없다.

〈표 14〉 청소년과 부모의 부양형태 비교

범 주	청소년		부 모	
	백분율(%)	범 주	백분율(%)	범 주
처음부터 동거	27.6	자녀와 동거, 경제적 부양	15.8	
동거후 독립	15.5	자녀와 동거, 경제적 자립	21.2	
독립후 동거	43.6	자녀와 별거, 경제적 부양	15.2	
처음부터 독립	13.3	자녀와 별거, 경제적 자립	45.5	
		기타	2.3	
계	100.0		100.0	

V. 결론 및 제언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부모 부양의식과 중년기 부모의 노후 피부양의식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부모는 노후 부양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여 가족부양에서 자기 부양으로 변화되었음을 볼 수 있으며, 청소년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나 장남이나 아들형제만 부양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들, 딸 모두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 장남 및 아들형제에게만 의존하던 전통적인 부양의식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은 노인과 함께하는 것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며, 노인의 권위가 낮고 우리나라의 노인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노인의 생활이 편안하고 만족하기보다 고독, 불행할 것이라는 생각이 대다수로 이는 청소년들이 노인에게 관심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이 현실적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바르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모들이 노후의 생활을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는 의식으로 변화되었으나 대다수가 양로원에서의 노후생활을 거부하고 있고, 노후 준비방법에서도 1~2가지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어 폭넓은 노후준비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연구대상이 대부분 40대 부모라서 노후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론을 통해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

다.

첫째, 청소년들이 노인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현실적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바르게 인지하고 있으므로 노인과 자연스럽게 대화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지도하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둘째, 부모들은 노후 부양책임이 부모 자신에게 있고 자녀들과 별거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독립하겠다는 의식이 높아졌으므로 노후에 스스로 책임있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도록 노후준비를 위한 교육적 프로그램의 개발과 홍보가 필요하며, 노인부부가 자녀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재가복지 시설을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부모의 경제적·신체적 노후준비도는 높으나 정서적 준비도가 낮으므로 정서적 지원을 위해서 부모에게 사회적 지원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과 부모의 경우 노후 부양의식간의 거리를 좁히는 부모자녀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본 논문의 노후 피부양 의식과 노후 준비도에 관한 연구는 40대 부모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 졌으므로 앞으로 연령별로 비교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기의 성격특성에 따라 노후 준비도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연구도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고경애, 한국 청소년의 노인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2) 구은옥,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3) 김태령·장휘숙, 발달심리학, 서울:박영사, 1994.
 4) 김태현, 노년학, 서울:교문사, 1994.
 -----, 한국에 있어서의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1.
 5) 박영란, 한국노인의 부양체계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원망의 구조와 기능의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6) 박재간, 노인문제와 대책, 서울:이우출판사, 1979.
 7) 배세희, 중년기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8) 서병숙, 노인연구, 서울:교문사, 1995.
 9) 서봉연역, 발달의 이론, 서울:중앙적성출판사, 1991.
 10) 송효석, 가족의 노인부양에 관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11) 신기영·옥선화, 중년기 주부의 위기감과 사회관계망 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9권 1호, 1991.
 12) 유영주·이정연, 가정학 원론, 서울:신광출판사, 1994.
 13) 유호신, 우리나라 주부의 노인부양의식 태도에 관한 연구, 인구보건 논집, 5권 2호, 1985.
 14) 윤 진, 성인 노인 심리학, 서울:중앙적성출판사, 1995.
 15) 이가옥 외,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16) 이경희·이소희, 가족복지, 서울:형설출판사, 1993.
 17) 이춘재 외, 청년 심리학, 서울:중앙적성출판사, 1994.
 18) 임종권 외, 한국 노인의 생활 실태,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19) 임한순, 농촌 청소년의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20) 장인협·최성재, 노인 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21) 조복희 외, 인간발달, 서울:교문사, 1992.
 22) 조선일보, 1995. 4. 26, p23.
 23) 한국개발조사연구소,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 한국, 일본, 태국, 미국, 영국, 프랑스 6개국 노인 의식구조 비교 조사, 1984.
 24) 허 훈, 한국 대학생들의 노부모에 대한 가족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8권, 1988.
 25) Stuen Cynthia, "Outreach to the Elderly: Community Based services", Journal of Geronto-

-
- logical Social Work, Vol 8, 1985, PP.85-96.
- 26) Cowgill, D.O. : Aging and Modernization : A revision of the Theory Late life ed. J. F. Gubrium, (Springfield Ill. : Charles C. Thomas), 1974, P. 123-146.
- 27) Cicirell, V.G., "Adult-children Attachment and Helping Behavior to Elderly parents : A Path Mode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5, 1983, P.815.
- 28) Goode, W., World Revolution and Family Patterns (New York : The Free Press), 1963, P.38.